

읽기 강박과 우리가 잃은 지루함

이타적 유전자

박재항

이화여대 겸임교수



외출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리며 집에 무언가를 두고 온 걸 깨닫고 '아차' 하는 순간이 늘어간다. 나이 들며 잊음이 심해져서이기도 하지만, 챙기는 것들이 많아진 까닭도 있다. 지갑이나 스마트폰은 워낙 필수품이라 두고 왔으면 바로 돌아가서 가지고 오지만, 망설이게 되는 물품들도 있다. 대표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 읽을 책이다. 가방 안에 읽을 거리가 없으면 안절부절 한다. '아직도 책을 읽는 멸종 직종의 지구인'의 하나임을 자랑스레 생각하며서도, '읽기 강박'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스포츠센터의 트레드밀에서 걷기를 하면서도 책을 읽었다. 10년 전까지는 욕탕 안에서 반신욕을 하면서도 책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돌보기를 끼면서 사우나 안에서 독서는 그만두었다.

읽기 강박증은 예전부터 있었다. 화장실에서 낙서라도 글자로 쓰여져 있는 것은 꼭 읽어야 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의 창립자인 드윌 윌리스는 1차대전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해 병실에 누워서 잡지 읽는 걸로 소일하면서 요약판 잡지라는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그는 원래 길거리

의 표지판이나 호텔방의 작은 안내문까지 글자라면 지나치지 않고 읽어야만 하는 강박 증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비슷한 증세를 가지고 있고, 오타를 발견하면 으쓱대기도 했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고,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싶어 불안하기도 했다. 회사 생활하며 보고서를 많이 쓰고, 검토하고 수정하는 게 업이 되면서는 직업병 비슷하게 슬쩍 넘기기도 했다.

IMF 경제 위기 시절에 한 친구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이들을 무더기로 대기발령을 냈다. 친구에게 들으니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들 다수는 큰 테이블이 있는 방으로 출근하여 책이나 신문만 읽으며 퇴근시간까지 보낸다고 했다. 그 얘기를 나와 비슷한 '읽기 강박'이 있는, 소설 작품도 발표했던 미국 친구가 듣고는 '꿈의 직업(Dream job)'이라고 농담 겸 진담으로 얘기했던 적도 있다.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서서는 읽기에 들기와 보기까지 더해졌다. 챙기는 물품 중에 이어폰이 들어갔다.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했고, 편도 한 시간 넘게 강의를 다니게 되면서는 오디오북도 다운을 받아서 들었다. 태블릿 하나를 선물 받고는 한동안 그만두었던 트레드밀 위에서 책임기도 다시 시작했다. 책장 넘기고 고정시키기가 힘들었던 트레드밀에서의 책임기가, 부피도 웬만한 책보다 작고, 손가락 끝으로 살짝 화면만 만져도 다음 쪽으로 넘어가니 편리해져서이다. 그러면서 트레드밀에서의 TV는 꼭 켜놓고 힐끔힐끔 본다.



지난 5월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24 서울 세계도시문화축제 '인터내셔널 명태리기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책을 때리고 있다. 뉴스시

어떤 때 미처 팟캐스트를 듣고 있던 이어폰을 빼지 않고 태블릿의 다운 받은 전자책을 읽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앞쪽의 TV까지 세 개 매체가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뉴욕타임스 북리뷰 부문의 책임자를 2022년까지 맡았던 파멜라 풀은 인터넷 때문에 우리가 잃은 100가지 중 첫 번째로 '지루함'을 꼽았다.

라디오만 지직대는 교통 체증에 갇힌 차 속, 거의 움직이지 않는 마트 계산대의 줄 한가운데, 과월호 잡지만 있는 병원 대기실 등을 어떻게 견디었는지 회상해 보라고 한다. 파멜라 풀이 70년대의 부모들이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지루해 할 때 무엇을 했던가 물었다. 아무 것도 안하고, 그저 아이들이 때연을 마시게 놔두었다는 게 답이다.

유모차에는 손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기기들을 잡고 볼 힘도 없는 아이들을 위한 거치대가 마련되어 있다. 유모차를 미는 이들을 위한 거치대도 뒤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다. 한때 계산대에 자주 오르던 식당 안에서 마구 뛰어 다니는 애들에 대한 불만이 줄어든 요인으로 스마트폰을 보느라 애들이 정신이 팔려서 그렇다고도 한다.

단순히 시청각적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강박 이상으로 일하는 데도 그런 여백을 꼼꼼하게 메우려는 움직임도 있다.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을 대표하는 놀이공원에서 이벤트를 담당하는 선배 한 분이 계셨다. 그분의 초청으로 5-6년 만에 그 놀이공원을 갔는데, 이벤트가 더욱 화려해지고, 출연자도 많고, 내용이 다양해졌는데, 뭔가 불편한 구석이 있었다. 나중에 선배에게 그 느낌을 전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이들이 많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원인을, 공연이나 행사에서 진행 순서와 참여자들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큐시트를 들어서 얘기해줬다.

"예전에는 우리가 큐시트를 5초 단위로 작성했거든. 그것도 아주 치밀하다고 그랬어. 이제는 그 시간이 점점 짧아져서 3초에서 1초 단위로까지 왔어. 출연자들도 1초 단위로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야 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관객들이 공연 한 순간 한 순간을 음미하며 즐길 시간이 없는 거야. 계속 그 움직임 따라가기 만도 바쁘니 불편하지."

세스 고딘이라는 마케팅 전문가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교통안전청에서는 '공항에서 보안검사를 할 때 허리띠와 노트북은 같은 바구니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다. 그걸 그는 실제 안전한 것보다는 '규칙을 따르는 체제를 만들고, 무작위적 불안을 조성'하여 '그렇게 하면 더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며 '그런 거라면 계속하세요'라고 비꼬았다.

규칙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뭔가 일을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공항 검색대에서 노트북을 따로 꺼내 놓으라는 건, 보안 직원들에게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고 한 마디 하도록 계속 일을 시키려는 장치 아닐까. '배터리 폭발' 이런 건 실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주 좋은 핑계거리이고. 입국심사대 같은 데서 사람들 줄을 이리저리 몰아치거나 새 줄을 만드는 행위도 실제 속도 개선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는데,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 기다리는 사람들의 지루함을 덜어주고, 직원들에게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다.

정보 입력을 안하고 멍하니 있으면 지루함을 넘어 불안해 하는데, 이렇게 입력만 계속 되면 출력을 할 시간까지 잊게 된다. 입력을 끄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 이 정보과잉의 시대에 그래서 사서 지루함을 찾는, 아니 지루함으로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드는 '명태리기 대회'와 같은 행사가 생길지도 한다.

수난사고 없는 안전한 여름을 바라며

기고

최명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의원



올해 장마로 전국에서 산사태와 물난리 등 피해가 속출했다. 전남도에도 서남권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폭우에 이어 곧바로 폭염이 오는 등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리라 예상된다.

장마가 끝나고 찾아 올 7월 말, 8월의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하고자 바다, 강, 호수 등으로 떠나 물놀이를 즐긴다. 시원한 물살을 맞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

고, 가족과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것은 여름철의 큰 기쁨 중 하나이다

지난 5월 기상청이 발표한 '2024 여름철 기온에 대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7월과 8월의 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각각 40%와 50%로 전망했다. 올해도 점점 더위 속에 시원한 곳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자연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는 즐거운 여름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당연 "안전"이다.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다는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고사성어가 있듯 즐거운 물놀이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수난사고 구

조건수는 총 5만4552건으로 매년 여름철(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계곡·급류사고는 지난해 307건으로 전년(197건)에 비해 약 56% 증가했다. 물놀이 익사 사고도 928건으로 전년(776건)에 비해 약 20% 늘었다

물놀이 안전사고는 자칫 생명의 위협이 있어 사고자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갑작스런 사고 발생에 당황하여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남도는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계곡과 하천 71곳을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전펜스와 안전수칙 표지판, 구명조끼와 로프 등 안전장비를 비치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에 나선다.

휴일에는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하고, 시군, 경찰, 소방, 해경, 119수상구조대 등 유관기관과 긴급 연락체계를 구축

하는 등 인명사고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대책 기간 안전요원 배치 및 근무실태, 위험구역 접근 차단 조치, 인명구조함 관리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도민 경각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전수칙을 지속 홍보하고 있다.

특히, 방학과 휴가 성수기인 지난 15일부터 8월15일까지를 물놀이 안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읍면동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예찰활동을 확대한다. 안전요원이 없는 심야와 새벽 시간대 위험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능형 CCTV를 보강 설치해 24시간 물놀이 사고 예방·대응·감시로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계속 접하게 된다. 즐겁게 출발한 물놀이지만 불행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다. 대부분 작은 주의만 가졌어도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안타깝다.

일상생활에서 물놀이 전 준비운동·구명조끼 착용·장시간 수영 금지 등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수영이 금지된 목포시 죽곡동 유달유원지 일원에서 기말고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 A군이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구명조끼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한다면 대부분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음에도, 해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641건의 연안 사고가 발생해 1008명이 피해를 당했다. 이 가운데 사망·실종자는 120명이고 사망·실종자 중 110명(91.6%)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사고가 그러하듯 물놀이 사고 역시 'שלמ'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 휴가철 물놀이 안전수칙을 한 번쯤 숙지해 안전사고 없는 건강하고 즐거운 휴가철이 되길 기대해 본다.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